

내부, 건축, 조경 건축, 도시 계획의 통합

- 도시 내부의 개념을 중심으로 -

The Fusion of Interior/Architecture/Landscape Architecture/Urbanism

- Focused on the Conception of Urban Interior -

Author 김명식 Kim, Myungshig / 정희원, Interior Architecture and Design, Ph.D.

Abstract Architecture is not only coming out of the making of a building room but also contributing to the making of an urban room. "The inside is not a contradiction of the outside...architecturally opened." (De Carli, 1967) The urban room is felt as a sense of rapport between building and city because architecture makes the building room closed simultaneously open toward the city. Architecture exists between both room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by the conception of interior, architecture and urbanism and thus, the possibility of giving a theoretical ground to Interior Architecture/Design; "all architecture is interior architecture." (Ottolini, 1996) It is in line with the idea of the "Fusing: Landscape/Urbanism/Architecture." (Holl, 2009) The paper deals with, through literature review, a possibility of the fusing: Interior/Architecture/Landscape/Urbanism. The first site explores the meaning of the urban place as a thing, which gives a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building interior and the urban interior. The second site illustrates the idea of the urban interior for dwelling. The urban interior is definitely a place of dwelling to keep human inhabitancy, which takes place in a united interior of the building interior and the urban interior. The third site clarifies the idea of the urban interior. While the building interior gives human being with the private stage, the urban interior provides him with the public stage of city life. The two different interiors constitute an interior world for his trajectory of dwelling. The last site traces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the urban interior. The trace comes to a conclusion that architecture, landscape, and urbanism can be unified by the conception of interior and the urban interior is an object of "Interior Architecture/Design." This paper is theorized as a twofold singular of the building interior and the urban interior. Ultimately, it is relevant to the theoretical principle of fusing interior/architecture/landscape/urbanism, and aims at offering a departing point to consider the urban interior as an object of "Interior Architecture/Design" and for the future studies of the urban interior.

Keywords 도시의 방, 도시의 장소, 도시의 내부
Urban Room, Urban Place, Urban Interio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대학의 분과학문 체계는 신학부와 철학부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대학 볼로냐 대학(1088)을 필두로 중세 후반을 거치면서 세워진 서양의 많은 초기 대학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분과학문의 발전은 20세기 말까지 절정에 이르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기의 전환점인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이르는 다른 방향의 통합, 융합 혹은 통섭과 같은 다양한 학문을 연결하는 통합학문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1998년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통섭, 지식의 대통합, 최재천 번역, 2005)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학문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강병남 외, 2007)와 통섭의 기술(최민자, 2010) 그리고 미국의 지성, 통합을 말하다(이형태, 2012)와 같은 서적들은 우리가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으며, 분과학문의 재편, 즉 인접학문뿐만 아니라 타 학문의 통합 가능성과 발전된 통합학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와 성리학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 통섭은 '큰 줄기를 잡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다'는 뜻이다. 서양이나 동양의 어느 한쪽의 독점적인 학문의 영역이 아닌 이것은 우주의 본질적인 질서를 철

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성찰하여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던 고대 그리스의 사상에도 그 근간이 있다.

통섭, 통합 혹은 융합은 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학문 간의 통합은 분화된 각 학문에서 얻어진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더욱 큰 체계 속에서 세계의 질서 그리고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분과학문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타 학문 그리고 인접학문의 이해와 통합을 통해서 학문이 우리 삶의 세계를 보다 본질의 측면에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에는 인간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노력의 의의가 있다.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21세기 들어 한국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학문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2006년에 창립된 한국의철학회와 2010년에 설립된 복잡계네트워크 등은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접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복잡계네트워크는 2014년 4월에 한국복잡계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잡계 이론 분야의 학제간 학술연구와 회원 간의 지식 교환, 자연과학과 인문 그리고 사회과학의 융합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학문의 발전 양상과 함께 스티븐 홀(Steven Holl)이 말한 “조경 건축/도시 계획/건축의 융합”(2009)은 내부를 다루는 본 학회에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것은 1996년 밀라노 공대 Interior Architecture and Design학과 교수 자니 오토리니(Gianni Ottolini)가 제시했던, 도시의 열린 공간과 건축의 공간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닮아 있다. 오토리니가 제시한 이 통합의 기초 이론 이래 홀이 말하는 융합의 화두는 건축과 도시를 다루는 학문에서 가장 최근의 일이다. 그가 그의 책, *Urbanisms: Working with Doubt*(2009)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융합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비록 그가 상반되거나 이질성의 학문을 통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동질성의 인접학문을 융합하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다른 영역이지만 공통된 학문의 대상, 즉 내부이다. 세부적으로 각기 다른 대상을 다루는 건축과 조경 건축 그리고 도시 계획은 내부 공간의 성질이라는 공통된 공간성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이 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3년 독일의 예술 역사학자 아우구스트 슈마르조(August Schmarsow)는 건축이 하나의 예술로서 도시 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피력하였고, 1928년 이탈리아의 예술 이론가인 살바토레 비탈레(Salvatore Vitale)는 건물 내부에서 도시 내부에 이르는 공간의 연속성 개념을 기술하며 건축과 도시의 연결성을 강조하였으며, 많

은 부분 비탈레의 생각에 기대고 있는 이탈리아 건축가 브루노 제비(Bruno Zevi)는 1948년 건축 공간이 도시의 공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확장되는 확장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1960년대 말 루이스 칸(Louis I. Kahn)은 방의 개념으로 건물 내부를 도시로 확장하였다. 크리스티안 노르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는 1979년 건물 내부의 공간에 대응할 만한 도시 “내부”(urban “insid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1982년 오토리니가 “도시 내부”(urban interior)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1996년 오토리니는 이것을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의 이론적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며 발전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개념 전개는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 그리고 건축, 조경 건축 및 도시 계획의 통합 혹은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 2009년 홀이 말하는 융합은 이 이론적 기초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내부 공간의 통합 가능성이 실제로 통합 혹은 융합으로 나타났을 때,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영역(대상)은 building interior에 한정되지 않고 urban open space, 즉 urban interior를 포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의 이론적 토대 중심에 서게 된다.

요컨대, 건축에서 다루는 공간이 도시로 열려 확장되고 동시에 통합되는 공간성의 개념 발전과 타 분야의 학문 그리고 인접학문의 융합을 장려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가 이 논문의 배경이고 출발점이다. 내부의 공간성으로 건축, 조경 건축 및 도시 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론적 근거를 추적하고 정리하여 통합의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을 이 논문의 목표로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의 공간이 “urban interior”의 개념으로서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학문 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 활발한 담론과 논의가 이 논문으로부터 촉발되고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건축, 조경 건축 및 도시 계획의 대상은 건축의 공간에서부터 도시의 공간에 이르는 인간 삶의 세계가 펼쳐지는 다양한 공간이다. 세 학문의 목적은 인간 삶의 세계, 즉 공간에 더욱 향상된 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통섭을 통해 잡을 수 있는 큰 줄기이다. 왜냐하면, 세 영역 모두 도시의 공간 안에서 궁극적으로 향상된 거주 질을 부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 내부에 특정한 질을 부여하는 것이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존재 이유이므로, 세 개의 영역 모두는 이론적으로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대상이 된다. 이 세 영역을 내부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특히, 도시의 공간을 도시 내부(urban interior)로 정의할 때 세 영역을 융합 그리고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줄기를

잡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다'의 통섭은 “내부의 개념”이라는 큰 줄기를 잡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영역을 한데 묶어 새로운 “내부의 개념”을 잡는 것으로 가능하다. 세 영역이 도시 내부에 거주를 위한 향상된 질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내부의 개념은 통합의 용매가 된다.

여기서 다소 생소한 도시 내부의 개념은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건축의 본질이 내부 공간에 있는 것인 만큼, 조경 건축이나 도시 계획의 본질은 도시 내부 공간에 있다. 도시의 공간을 도시 내부로 이해하는 것이 이 논문의 논점이고 논문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그래서 도시 내부가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부에 관한 새로운 담론의 제시와 논의의 시작은 건축의 공간과 도시의 열린 공간이 통합될 수 있는 공간성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설명하고 있는 'thing'의 의미로 장소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공간을 장소의 개념으로 파악한 후, 도시 공간이 거주적 장소로서 내부의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기착점을 거쳐 도착점인 도시 내부의 개념에 도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내부의 개념이 발전 및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도시 내부가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학문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밝히며 제시할 것이다.

요컨대, 이 논문의 주요 수행과제는 공간의 통합 가능성을 담고 있는 내부 공간의 개념을 추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도시 내부를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 두 과제는 모두 도시 내부의 개념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면서 진행되고 동시에 논거는 전개된다. 문헌의 범위는 지난 세기와 현재까지로 제한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고 본문에서도 밝히겠지만 도시 내부의 공간 개념은 20세기를 전후로 건축을 도시와 함께 고려하려는 통합의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통합의 관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학문적으로 통합을 시도하려고 했던 서양(이탈리아,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으로 지리적 범위를 제한한다.

2. “Thing”으로서 이해하는 도시의 장소

건축은 하나의 방, 즉 공간을 만듦으로써 출발한다.¹⁾ 이 방이라는 공간은 거주를 위한 가장 작은 장소이다. 여기서 공간은 일반적으로 용적을 갖는 것으로, 장소는 용적 속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자리 혹

은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예컨대, 방은 개인적인 환경이 거주자의 행위를 형태화하고, 도시는 사회적인 환경이 “거주자들의 행위를 형태화”하므로 두 장소에서 다른 현상이 발생한다.³⁾ 그래서 장소는 현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의 공간은 방의 공간처럼 물리적인 경계를 명확하게 갖지 않는다. 이 공간은 여러 다른 현상들이 발생하는 장소들로 구성된다. 방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은 분명히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질적인 장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건물 내부의 장소와 도시의 장소는 서로 대립적이지 않고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이는 하이데거가 thing을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장소의 속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thing에 관한 기술은 건축의 공간성과 도시의 공간성, 그리고 둘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의 속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thing은 고대 독일어인 *thing* 혹은 *dinc*이다.⁴⁾ 이 둘은 “회합”을 의미한다.

“회합은 thing들의 지역 속에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을 놓아주는 의미로 그 장소 속에서 출현한다. 오래된 단어의 형태인 지역은 열림(die Gegnet: that-which-regions)으로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자유로운 확장을 말한다... 동시에 이것은 thing들이 함께 모여 있는 보존을 의미한다...thing들은 단순히 한 장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자체로 장소들이다.”⁵⁾

Thing의 의미 “회합”으로부터 “보존, 확장 그리고 열림”이라는 장소의 속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 장소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전체의 일부분이다. 이 장소는 thing과 같이 자신을 자유롭게 확장하여 전체의 형태로 인지하게 하는 회합 및 통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소는 하나의 개체로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장소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전체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남겨져 있고, 항상 다른 것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열려있어 전체를 인지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사용하고 있는 명사형의 die Gegnet은 “that-which-regions”인데, 이 독특한 표현은 조어로서 다소 이상해 보이지만 thing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⁶⁾ “That-which-regions”는

1) Kahn, Louis I.,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Text of AIA Gold Medal acceptance speech, Detroit, June 24, 1971), *AIA Journal* 56, no.3, September 1971, pp.33-34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Knox, Paul L. and Steven Pinch,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Pearson Education, Essex, 2006, p.6

4) 또한,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에 의하면 'thing'은 모임이나 만남의 의미를 가진 오래된 영어(1150년경 이전)이기도 하다.

5) Heidegger, Martin, *Die Kunst und der Raum*, (Art and Space, translation by Charles H. Seibert), St.Gallen, Erker Verlag, 1969, pp.10-11

“장소의 보존과 확장 그리고 열림”이라는 공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Thing을 통해 알 수 있는 장소는 지점으로 서 그 자신, 주변에 의해 둘러싸인 열림, 인지할 수 있는 것들까지의 확장으로 공간적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장소는 하나의 장소와 한 지역에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른 장소와 지역으로 펼쳐 확장한다. 이것은 방이라는 거주를 위한 최소의 장소가 다른 방(장소)들과 연결되며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방을 장소로 치환하여 장소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이라는 장소가 도시의 공간과 장소에 열려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과 연결된 도시의 공간과 장소는 더 넓은 창공과 우주의 무한한 공간으로 열려 펼쳐지게 된다.

Thing의 보존과 열림 그리고 자유로운 확장은 분명 장소의 특성이다. 장소는 환경적인 전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지구라는 장소에 귀결된다.⁷⁾ 방은 도시 속 최소의 거주 장소이고, 도시는 지구 대기 속 최대의 거주 장소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우주 속 지구라는 장소, 지구 위 도시라는 장소, 그리고 건물 내부인 방이라는 장소는 서로 연결되어 거주를 위한 통합된 삶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건축은 거대한 거주 장소, 즉 지구의 한 부분을 분절하여 사적 영역인 내부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고, 조경 건축과 도시 계획은 분절되어 만들어진 도시 내부의 장소에 공적 영역인 도시 내부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과 도시는 거주를 위한 내부의 장소를 만들으로써 형성된 것이고, 이것은 둘의 공통점이다.

내부의 장소는 건축이 만들어낸다. 건축은 건물을 만들으로써 내부의 장소(방)를 창조해 낸다. 도시 내부의 장소는 건축이 만들어낸 건물들 사이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건축은 건물을 만들으로써 단순히 건물 내부의 장소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 내부의 장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중요한 것은 두 장소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의 장소는 긴밀히 건물의 형태에 의해 연결되어 함께 만들어진다. 장소의 속성으로 이미 설명하였듯이, 건물 내부의 장소는 도시 내부의 장소로 열려 있고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다른 장소는 거주를 위해 존재하는 내부라는 장소로서 통합된 하나의 장소, 즉 하나로 통합된 내부의 장소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거주를 위한 도시의 장소와 내부

6) Conley, Verena Andermatt, Rethinking Technologie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93, p.138
 7) 사실상 우주의 공간으로 귀결되지만, 우리의 감각 기간으로는 인지할 수 없다. 더 넓은 땅의 풍경과 푸른 하늘, 즉 대기로 귀결된다.

거주를 위한 장소는 현상과 공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장소는 건축의 몫을 표현하고 있다...장소는 인간의 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현현이고 인간의 본성은 그 장소에 속한 성질에 의존한다.”⁸⁾ 이런 점에서 건축의 대상은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장소가 되고 건축은 익히 알려진 공간의 예술일 뿐만 아니라 장소의 예술이 된다.

장소는 거주라는 삶의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결코 공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내부라는 거주 장소는 일상의 삶이 발생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안 하나의 방에서부터 도시를 지나 거대한 지구의 대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내부의 장소가 된다. 지구의 대기는 이미 주어진 내부이다. 그리고 이곳은 인간이 지속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 장소이고 내부의 세계이다. 인간 삶의 궤적은 이 내부의 세계, 공간과 장소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내부는 그 자체로 인간에게 안전한 곳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주에 치명적일 수 있는 기후와 위협이 되는 사람과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른 내부가 인간의 의도와 의지로 만들어진다. 내부는 인간이 거주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의미의 장소이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말한 “거주로서의 건물”로 알 수 있다.⁹⁾ 주어진 자연환경에 내재한 위협과 위협으로부터 건물 내부의 장소와 도시 내부의 장소는 창조된다. 이러한 내부의 장소들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¹⁰⁾ 인간의 노력으로 창조된 보호처와 같은 안전한 이곳은 거주를 위한 가장 최소의 장소와 가장 최대의 장소, 방과 도시이다.¹¹⁾ 방은 주변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과 위협의 요소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지만, 주변의 지형과 환경적인 특징을 받아들이고 응용하면서 형태화된다. 이 형태화된 장소는 도시의 시작이다.

방의 형태는 건물에 의한 것이고, 도시의 형태는 건물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이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방은 사적인, 도시는 공적인 거주를 위한 내부 혹은 내부의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삶을 위한 최소의 장소, 최소의 내부 공간, 최

8) Norberg-Schulz, Christian,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first published in Italian, Genius loci: paesaggio, ambiente, architettura, 1979), Rizzoli, New York, 1980, p.6
 9) Heidegger, Martin,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by Albert Hofstadter, originally published by Harper & Row, 1971), Perennial Classics, New York, 2001, p.146
 참고, Heidegger, Martin, “Bauen Wohnen Denken,” in Vorträge und Aufsätze, Neske, Pfullingen, 1954
 10) Scully, Vincent, The Earth, the Temple and the Gods: Greek Sacre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2, p.171
 11) 예를 들면, 성곽으로 둘러싸인 중세의 도시는 안전한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가장 최대의 장소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소의 건축 개체(unit)인 방은 주어진 환경에 단함을 설정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열림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방은 거주를 위한 방이 아니라 삶과 무관한 공간이 된다. 방을 만든다는 것은 이 방의 외부, 즉 도시 내부와 관계를 맺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외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경계화된 장소에 의해 이해된다. 경계화된 장소는 단함과 열림의 관계를 동시에 가진다. 단함과 열림은 내부의 장소와 외부의 장소를 구별함으로써 서로를 정의한다. 이 둘은 주거의 사적인 장소, 즉 방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공장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도시는 단함과 열림의 공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함과 열림은 내부와 외부라는 이중적인 성격과 연결의 속성을 갖는다. 쉽게 말하면, 방은 닫히기 위해 존재하고, 동시에 도시 내부의 장소로 열리기 위해 존재한다. 단함과 열림의 시작인 방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모여서 거주의 다채로운 장소와 도시를 형성한다. 하이데거가 말한 다음도 같은 의미이다.

“단일의 집, 마을, 그리고 도시는 건물에 의해 만들어진다. 건물 사이와 주변으로 다채로운 사이 공간이 형성된다. 건물이 거주자의 풍경이 되는 대지를 생기게 하고, 동시에 인간에게 더 넓은 하늘 아래 거주의 친밀감을 가져온다.”¹²⁾

단한 건물은 외부와 관계를 맺기 위해 열림의 개구부를 갖고, 도시는 여기서부터 다채로운 의미가 구성되는 체계를 가진다. 즉, 방이 거리와 만나고, 거리가 거리와 만나며, 거리가 공원 그리고 광장과 만나는 체계를 가진다. 그리고 지속해서 이러한 의미의 체계는 확장된다.

요컨대, 건축은 거주자의 장소인 내부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에 상대적인 외부인 이미 주어진 대기 속 자연, 도시, 마을 등과 함께 거주를 위한 내부의 전체 세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건축은 인간 거주자의 궤적이 시작되는 내부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궤적의 연장선에 있는 도시 내부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도시는 건물이 만들어낸 건물 내부의 장소와 도시 내부의 장소로 균집을 이루며 만들어진 거대한 거주자의 장소이다. 그래서 도시는 무수히 많은 내부의 장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는 장소, 즉 거주를 위한 하나의 내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조경 건축과 도시 계획은 도시 내부의 지형, 풍경,

그리고 장소를 다루어 더 나은 거주자의 질을 도시 내부에 부여하는 예술로 이해될 수 있다.

4. 연결된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

건물은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사적 삶을 위한 장치이며 동시에 “도시 삶을 위한 장치”이다.¹³⁾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분명 다르다. 하이데거의 설명 “thing의 보존”에서처럼 장소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고안된 장소는 장소의 속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도와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¹⁴⁾

장소는 분명히 우리 삶과 행위와 욕구, 즉 거주자가 현상으로 발현되는 곳이다.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이 주장한 “지향성”에 근거한 현상학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사적 영역인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공적 영역인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두 장소에 반응하는 의식만큼이나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자명한 두 현상의 차이는 다른 종류의 거주 방식 그리고 장소의 다른 성격을 드러낸다. 예컨대, 사적 장소는 공공장소에 구별되는 특색으로서 개인의 취향 그리고 성격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 개인성은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건물 내부 특히 방에서 관찰된다.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는 것, 방의 색을 바꾸고 액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 그리고 가구를 취향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은 개인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공적 영역인 도시 내부와 다른 사적 영역인 건물 내부의 성격을 말한다. 즉, 현상이 장소의 성격을 설명해주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성의 표출이 외부 환경과 현상으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상이하나 대조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동물’과 ‘대중문화’와 ‘유행’이라는 용어가 잘 설명해주고 있듯이, 개인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유행이나 대중문화는 방의 색을 정하고 가구를 고를 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방은 사회성보다 우세한 개인성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성보다 우세한 사회성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 내부의 장소 예컨대, 거리나 광장을 이해할 수 있다. 도시 내부는 이 둘의 현상이 발생하는 장소로 구성된다. 개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둘의 조우 혹은 소통은

12) Norberg-Schulz, *op. cit.*, p.10, quoted from Heidegger, Martin, *Hebel der Hausfreund*, Neske, Pfullingen, 1957, p.13

13)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How to Look at Architecture*, (translation by Milton Gendel, edited by Joseph A. Barry, first published in Italian in 1948), Horizon Press, New York, 1957, p.15
14) Crang, Mike, *Cultur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1998, p.47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 그리고 둘이 만나고 연결되는 건물 형태만큼이나 유사하다.

루이스 칸이 말한 것처럼, 건축은 개인성의 현상이 발생하는 건물 내부, 즉 하나의 방을 만들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방들이 서로 잘 짜여서 거주하기에 좋은 ‘방들의 사회’, 즉 ‘내부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건축의 소임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소임은 끝나지 않는다. 건축은 ‘옴뎀이 되는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내부와 건물 그리고 건물 내부를 긴밀하게 조우시켜야 한다. 사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건물 내부라고 하더라도 공적 영역인 도시로 향해 열려있고 연결되어 확장되어야 한다.¹⁵⁾

내부를 에워싸고 있는 덩어리 형태인 건물은 건물 내부의 단합과 열림 그리고 확장을 위해, 즉 도시 내부와의 연결을 위해 존재한다. 건물은 벽을 통해 닫힌 내부 공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개구부(문과 창)를 통해 건물을 열어 건물 내부를 도시 내부(예컨대, 대기와 거리)에 연결시킨다. 건물 형태의 모든 요소는 두 내부를 긴밀하게 관계시킨다.¹⁶⁾ 그래서 건물 형태는 두 개의 내부 공간 사이에서 둘을 이어주는 연결의 매개가 된다. 이미 중세 말에 알베르티(Alberti, *De re aedificatoria*, 1452)가 언급한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특히, 근대 건축의 움직임이 태동하던 19세기 말에서부터 통합과 통섭 그리고 융합을 말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많은 이론가와 건축가가 설파해왔다. 이 시기에 도시 내부에 관한 개념이 등장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다. 도시 내부의 개념은 이 흐름의 연장선 위에서 건축과 조경 건축 그리고 도시 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5. 도시 내부의 개념 전개와 건축, 조경 건축, 및 도시 계획의 통합

1893년 슈마르조는 건축이 하나의 예술로서 건물 요소의 배치가 더 큰 도시 공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이 “공간의 창조자”(“the creatress of space”)로서 건물 내부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건물의 요소는 거리, 광장, 기념물, 다른 건물 및 거주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에 따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기술했다.¹⁷⁾ 건축은 건

물 내부뿐만 아니라 더 큰 도시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도시 계획의 예술적인 배치”(“the artistic layout of a city plan”)임을 알 수 있다.¹⁸⁾ 건물의 모든 부분은 도시의 공간으로부터 건축의 공간을 나누는 대응 관계의 요소가 아니라 건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후자를 전자에 연결하는 상관관계의 요소이다. 왜냐하면, 알베르티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건물의 형태는 도시의 복합적인 공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건물이 도시 내부의 풍경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슈마르조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는 비탈레는, 1928년 건축의 공간에서 도시의 공간에 이르는 연속적인 공간을 기술하였다.¹⁹⁾ 건물이 건축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슈마르조가 제공했다면, 비탈레는 연속의 공간을 통해 건축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이 연결된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연속된 공간은 기본적으로 거주의 궤적을 바탕으로 건축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경험하며 파악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움직임 혹은 이동을 통해 건축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비탈레가 말하는 건축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1939년 미국 건축가 조지 하우(George Howe)는 거주의 궤적을 고려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근본적인 건축의 경험”이며, “건축이 네 벽과 지붕에 제한될 수 없다”고 하였다.²⁰⁾ 그래서 건축을 파악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가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연속적인 전체 공간에 연결된 부분으로서”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비탈레가 강조하고 있는 공간의 연속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²¹⁾ 하우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내부와 외부 사이에 존재하는 건물이 두 공간을 잇고 있으며, 두 공간이 연속되어 연결된 하나의 전체 도시 공간 안에서 건축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비탈레의 “공간의 연속성”과 하우의 “연속적인 전체 공간”은 제비의 책, ‘공간으로서의 건축(1948)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제비는 비탈레의 생각에 기대어 건축의 공간이 도시의 공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모든 건축의 개념은 대등한 도시의 개념”이라고 역설하였다.²²⁾ 이것은 한편으로 르코르뷔지에의 “모든 것 속에서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Santa Monica, 1994, p.288 “the creatress of space”에서 “space”는 건물 내부를 의미한다. “creatress”는 creator(창조자)의 여성형(창조녀)이지만 창조자로 번역하였다.

18) Ibid., p.274

19) Vitale, Salvatore, *L'estetica dell'architettura: saggio sullo sviluppo dello spirit costruttivo*, Laterza, Bari, 1928, pp.48, 61

20) George Howe's paper, *Going In and Coming Out-the Fundamental Architectural Experience*, (unpublished, presented at the Philadelphia Art Alliance, 1939/George Howe Papers, Avery Library, Columbia University), pp.2, 10

21) Ibid., p.2

22) Zevi, *op. cit.*, p.282

15) 열림과 확장은 앞서 기술한 thing으로서 장소의 속성을 참고

16) Alberti, Leon Battista, *The Ten Books of Architecture: The 1755 Leoni Edition*,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86, pp.13, 100

17) Fiedler, Conrad, Adolf Göller, Adolf Hildebrand, August Schmarsow, Robert Vischer, and Heinrich Wölfflin, *Empathy, Form, and Space: Problems in German Aesthetics, 1873-1893*, (translated by Harry Francis Mallgrave and Eleftherios Ikonomou), The Getty Center for

의 건축과 모든 것 속에서의 도시 계획”²³⁾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 비탈레와 하우에 이어 연속된 공간 전체로서 도시의 공간을 인지하면서 건축의 공간을 도시의 공간으로 확장했다. 주목할 것은 건물의 벽이 도시의 공간인 “거리와 광장의 내부 공간”을 구성한다고 한 점과 건물 외부는 “도시에 대한 내부”라고 한 점이다.²⁴⁾ 제비는 도시의 공간을 내부라는 단어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칸의 방에 대한 생각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약 1969년에 칸이 스케치북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은 건축의 기본 개체로서 방과 연속적인 공간(방)을 통해 도시의 공간을 설명하고 있다.²⁵⁾ 특히, 1971년 6월 AIA Gold Medal 수상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칸은 거리를 “합의에 의한 방”으로 언급하면서 방의 개념을 확장했다.²⁶⁾ 칸은 건축의 공간인 방에서부터 도시의 공간에 이르는 수많은 공간을 연속된 방 그리고 방들의 사회로 이해했다. 건축의 공간인 건물 내부 혹은 방은 도시의 공간 속에서 격리된 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칸의 방을 통해 재차 확인된다.

거리는 건물의 벽과 문 그리고 창문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도시의 문맥을 형성한다. 그 시작은 방이다. 그리고 이 방은 거리를 지나 공공의 장소 예컨대, 공원이나 광장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의 방은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언급했듯이 도시는 방에서부터 나오고 방과 거리, 거리와 거리, 거리와 광장이 만나서 형성된다. 결국, 방에 대한 칸의 사고는 도시에 부속, 즉 도시의 내부에 결속되어 있다.

1979년 노르베르그-슐츠는 건물 내부에 대응할 만한 도시 “내부”(urban “inside”)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다.²⁷⁾ 이 용어는 두 개의 다른 공간(건축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을 내부라는 언어와 내부의 개념으로 통합할 가능성과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할 가능성을 주고 있기 때

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²⁸⁾ 이는 1987년 오토리니가 “도시 내부”(“urban interior”)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²⁹⁾ 이를 통해 그는 1996년 마침내 건축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한 공간 내부에 존재한다...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한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움직임은 내부에서 내부까지의 경로라 할 수 있다...하나의 건물은 내부의 용적을 갖는 것과 동시에 외부로 몸체를 발산하는 이중의 속성이 있다...공간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건축과 도시의 공간성은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모든 건축은 내부 건축이다. 건물의 정면(façade)은 하나의 도시 혹은 영토의 내부에서 그 자신을 발산하는 것기의 방법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³⁰⁾

오토리니에 의하면, 건축은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가 존재하는 하나의 내부, 즉 삶을 위한 하나의 세계가 있을 때 존재한다. 다시 말해, 건축은 거주를 위해 창조된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가 통합된 두 겹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항상 공간 안에 그리고 건축은 항상 도시의 열린 공간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건축은 내부 건축이 되고 도시의 공간은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대상이 된다.

건축은 열림과 닫힘의 여러 단계를 조장함으로써 우리 삶의 궤적을 방에서 도시로 확장하고 있다. 방은 항상 다른 방으로 열려 있다. 건축은 방의 사회로 구성되고 도시의 방으로 이뤄진 사회로 열려있다. 미셸 푸코는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건축은 공간 속에서 하나의 요소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영역으로 뛰어 들으로써 특정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고려된다.”³¹⁾

문을 통해 내부로부터 나오는 동안 우리는 외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곧 도시의 내부라는 것을 방의 연장인 거리, 광장, 공원 등 내부의 연속적인 확장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연속된 내부 공간에서 우리 삶의 궤적을 만들고 완성해 나간다. 건축은 우리를 방의 연속체, 즉 내부의 연속체로 이루어진 세계에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도시 내부는

23) Le Corbusier, *Precisions on the Present State of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With an American Prologue, a Brazilian Corollary Followed by the Temperature of Paris and the Atmosphere of Moscow*, (translation by Edith Schreiber Aujame), MIT Press, Cambridge, MA, 1991, pp.67-83

24) Zevi, op. cit., p.282

25) 칸이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은 “City/2 Exhibition, Philadelphia Museums of Art, 1971.”에 전시되었는데, 방, 거리 그리고 도시에 관한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칸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그림에 적었다. “건축은 방을 만드는 것이다. 방들의 집합체를 만드는 것. 빛은 그 방을 위한 것이다. 하나의 빛 그리고 또 다른 빛에 의해 주고받은 상념은 하나의 방 안 그리고 다른 방 안에서처럼 동일하지 않다. 거리는 방이다. 합의에 의한 공동체의 방이다. 그것의 성격은 교차지점에서 교차지점까지 변하고 어찌면 수많은 방들이라 볼 수도 있다.” 참고 Brownlee, David B, David G. De Long and Grant Mudford,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91, p.127 그리고 Kohane, Peter, Louis Kahn and the Art of Drawing a Room, A+U, no. 461, 2009, pp.171-174

26) Kahn, op. cit., pp.33-34

27) Norberg-Schulz, op. cit., 1980, p.58

28) 여기서 노르베르그-슐츠는 삶의 세계를 현상학과 내부의 풍경 혹은 내부의 체계로 언급하고 있다.

29) Ottolini, Gianni, *Quaderni del Dipartimento di Progettazione dell'Architettura*, n.4, Clup, Milan, March 1987, pp.38-50

30) Ottolini, Gianni, *Forma e significato in architettura*, (first published in 1996, English edition, *Form and Meaning in Architecture is not yet published.*), Cortina, Milano, 2012, pp.15-16

31) Foucault, Michel, *The Foucault Reader*, (Paul Rabinow, ed.), Pantheon, New York, 1991, p.253

건물 내부에 대항하는 공간이 아니라 연속되고 통합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레더베로우(David Leatherbarrow)는 2004년 건축과 조경 건축을 동일하게 “당대의 문화 속에서 지형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지형의 예술”(“topographical arts”)이고, 둘의 임무를 “단조로운 삶의 형태 속에서 내구성과 아름다운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³²⁾ 이것은 그가 더 큰 거주 영역인 도시 공간의 전체 지형 속에서 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전체 속 부분의 환경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도시의 공간은 조경 건축과 건축의 대상이 된다.

도시 계획이 도시의 공간, 즉 도시 내부의 풍경을 다루는 예컨대, 가로수, 가로등, 벤치, 건물, 거리, 공원, 광장 등을 디자인하는 지형의 예술로 이해된다면, 가구나 조명을 디자인하고 건물 내부의 풍경을 다루는 Interior Architecture/Design과 대등한 의미의 체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9년 홀의 조경 건축/도시 계획/건축의 융합에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융합은 결코 급진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접 학문 그리고 타 학문 간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는 최근 현상과 더불어 도시 내부의 개념 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축/도시 계획/조경 건축의 융합은 도시의 단편들 속에서 모든 면을 통합하여 생각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이 통합은 질감, 질료, 색, 반투명, 투명, 그리고 반사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뒤늦게 조경 설계가 요구되면, 건축과 도시 계획을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없다. 넓은 상업의 도시 개발에서 조경과 공공의 공간을 융합하는 것은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개념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³⁴⁾

오픈리니가 앞서 제시한 통합의 이론은 홀의 융합에 분명히 유효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융합은 건축이 건물의 방과 도시의 방을 이어주는 확장의 매개와 지형의 예술로서, 조경 건축이 도시의 풍경을 만드는 지형의 예술로서, 그리고 도시 계획이 도시의 방들을 조정하고 채색하는 도시의 예술로서 이해되는 세 분야를 묶어 도시 내부를 대상(통섭의 큰 줄기)으로 하는 그리고 도시 내부에 특질을 부여하는 예술(통섭의 새로운 것)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 이 융합은 홀이 말한 것처럼, 세 학문의 관련된 개념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내부의 개념은 가장 큰 효력을 발생시키는 융합의 용매가 된다.

6. 결론

건축은 분명히 건물 내부인 방을 창조하고 동시에 도시의 방을 창조하는 데 기여한다. 조경 건축과 도시 계획은 방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두 겹으로 된 하나의 공간인 도시 내부에서 건축과 함께 도시의 방을 증재하고 창조한다. 이런 점에서 건축과 조경 건축 그리고 도시 계획은 도시 내부의 풍경을 창조하는 지형의 예술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예술은 다른 예술이 할 수 없는 공간, 즉 내부를 독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의 본질은 도시 내부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세 학문을 내부라는 공간의 개념으로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 학문이 내부의 개념으로 통합되었을 때 도시 내부에 더 나은 삶의 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마침내 온전한 도시 내부의 아름다움을 획득할 수 있다. 도시 내부는 세 학문의 영역과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 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영역과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에 집중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기술한 내용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2장 thing으로서 이해하는 도시의 장소’에서 밝혔듯이, thing의 속성(보존/열림/확장)을 가진 장소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선다. 거주를 위한 최소의 장소인 방은 도시 내부의 방으로 열리고 연결되어 확장된다. 이것은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를 하나의 거주 장소로 통합하여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3장’에서 기술했듯이, 도시의 장소와 내부는 거주의 장소로 건물 내부와 통합된 하나의 도시 내부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도시 내부는 건물 내부와 대등한 의미의 체계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 내부는 벽, 바닥, 가구, 조명, 화분 등으로, 도시 내부는 건물의 벽, 거리, 벤치, 가로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개의 다른 내부 그러나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내부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도시 내부가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의 환경 요소를 제공한다. 특히, 벤치, 가로등, 가로수, 버스 정류장, 이정표 등등 거주를 위한 요소들은 도시의 세간(urban furnishings)으로서 도시 내부와 함께 통합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다른 종류의 삶이 발생하는 사적 장소와 공적 장소인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는 4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중

32) Leatherbarrow, David, Architecture Oriented Otherwis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9, p.1 레더베로우는 펜실베이니아 건축과 교수이다. 건축 현상학과 관련하여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33) Ibid., p.5

34) Holl, Steven, Urbanisms: Working with Doub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9, p.37

재자인 건물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건물 형태에 의해 건축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을 융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 물리적 그리고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융합의 개념은 내부 공간의 통합성이라는 연장선 위에 있다. 5장에서 다룬 도시 내부의 개념 전개와 건축, 조경 건축 및 도시 계획의 융합은 궁극적으로 모든 건축과 모든 조경 건축 그리고 모든 도시 계획을 도시 내부의 개념과 함께 내부의 건축과 내부의 조경 건축 그리고 도시 내부의 계획으로 인식하게끔 한다. 이 융합에서 중요한 것은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학문 영역이 building interior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urban open space을 포섭하여 통합할 수 있는, 즉 건물 내부와 도시 내부가 통합된 an urban interior로 확장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의 중심에 있게 된다는 점이다.

요컨대, 건물 내부가 도시의 공간으로 열려 연결되고 확장되어 통합되는 내부의 확장된 개념 전개와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두 겹으로 된 하나의 도시 내부, 그리고 건축과 조경 건축 및 도시 계획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이론을 추적하고 정리하여 통합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 논문은, 도시 내부가 내부 혹은 내부의 영역을 창조하고 디자인하는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학문 영역 및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와, 앞으로 전개 될 타 학문 혹은 인접학문의 융합에서 도시 내부에 관한 더 많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의 공간을 내부로 인식하려는 시도와 논의가 이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융합의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이며, 타 분야의 학문 그리고 인접학문의 융합을 장려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기도 하다. 도시의 공간을 “urban interior”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Interior Architecture/Design의 대상 그리고 학문의 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는 내부에 관한 새로운 담론과 더불어 활발한 논의가 본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타 학문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 시작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Alberti, Leon Battista, *The Ten Books of Architecture: The 1755 Leoni Edition*,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86, pp.13, 100
2. Brownlee, David B, David G. De Long and Grant Mudford,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91, p.127
3. Conley, Verena Andermatt, *Rethinking Technologie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93, p.138
4. Crang, Mike, *Cultur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1998, p.47
5. Fiedler, Conrad, Adolf Göller, Adolf Hildebrand, August Schmarsow, Robert Vischer, and Heinrich Wölfflin, *Empathy, Form, and Space: Problems in German Aesthetics, 1873-1893*, The Getty Center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Santa Monica, 1994, pp.274, 287
6. Foucault, Michel, *The Foucault Reader*, (Paul Rabinow, ed.),

- Pantheon, New York, 1991, p.253
7. Heidegger, Martin, *Poetry, Language, Thought*, Perennial Classics, New York, 2001, p.146
8. Knox, Paul L. and Steven Pinch,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Pearson Education, Essex, 2006, p.6
9. Le Corbusier, *Precisions on the Present State of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With an American Prologue, a Brazilian Corollary Followed by the Temperature of Paris and the Atmosphere of Moscow*, (translation by Edith Schreiber Aujame), MIT Press, Cambridge, MA, 1991, pp.67-83
10. Leatherbarrow, David, *Architecture Oriented Otherwis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9, pp.1, 5
11. Norberg-Schulz, Christian, *Genius Loci: Toward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80, pp.6, 10, 58
12. Ottolini, Gianni, *Forma e significato in architettura*, (first published in 1996, English edition, *Form and Meaning in Architecture is not yet published.*), Cortina, Milano, 2012, pp.15-16
13. Scully, Vincent, *The Earth, the Temple and the Gods: Greek Sacre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2, p.171
14. Holl, Steven, *Urbanisms: Working with Doub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9, p.37
15. Vitale, Salvatore, *L'estetica dell'architettura: saggio sullo sviluppo dello spirit costruttivo*, Laterza, Bari, 1928, pp.48, 61
16.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How to Look at Architecture*, Horizon Press, New York, 1957, pp.15, 282
17. George Howe's paper, *Going In and Coming Out—the Fundamental Architectural Experience* (unpublished, presented at the Philadelphia Art Alliance, 1939/George Howe Papers, Avery Library, Columbia University), pp.2, 10
18. Heidegger, Martin, “Bauen Wohnen Denken,” in *Vorträge und Aufsätze*, Neske, Pfullingen, 1954
19. —, *Hebel der Hausfreund*, Neske, Pfullingen, 1957, p.13
20. —, *Die Kunst und der Raum*, (Art and Space, translation by Charles H. Seibert), St.Gallen, Erker Verlag, 1969, pp.9-12
21. Kahn, Louis I.,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Text of AIA Gold Medal acceptance speech, Detroit, June 24, 1971), *AIA Journal* 56, no.3, September 1971, pp.33-34
22. Kohane, Peter, *Louis Kahn and the Art of Drawing a Room*, *A+U*, no. 461, 2009, pp.171-174
23. Ottolini, Gianni, *Quaderni del Dipartimento di Progettazione dell'Architettura*, n.4, Clup, Milan, March 1987, pp.38-50

[논문접수 : 2014. 07. 29]

[1차 심사 : 2014. 08. 21]

[게재확정 : 2014. 10. 10]